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 보라”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2. 붓다 설법의 기본적 성격

붓다 설법의 성격을 구하다

이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붓다의 기본 설법에 관해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 아직도 수천의 부처님의 직설(直說)을 기록한 경전이 있다. 이런 것에 관해서 옛날의 논사(論師)들은 붓다 가르침의 기본적 성격을 여러 가지의 형식으로 요약하려고 힘써 왔었다.

예를 들면 소위 삼법인(三法印)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의 삼승(三勝)은 붓다의 가르침을 사상적 입장에서 거론(擧論)하였다. 그것이 외도(外道) 즉 당시의 다른 사상가들의 그것과는 틀리다는 점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의 설승(攝頌)uddana 시구로 요약해서 교리를 설명한 것에 귀착(歸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붓다의 가르침은 이것을 존재론(存在論)의 입장에서 말하면 ‘제행무상’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며, 그것을 인간론(人間論)의 견지(見地)에서 보면 ‘제법무아’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다시 또 이것을 목적론(目的論)적으로 거론한다면 ‘열반적정’을 구극(究極)으로 한다. 이렇게 하여 이 세 가지의 설승(攝頌)을 불교의 기발로 삼으며 거기에 불교의 사상적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려고 한 것이 소위 삼법인(三法印)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교를 사상적으로 파악하며 표현하려고 할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는 훌륭한 사상적인 영위(營爲)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붓다 가르침의 기본적 성격을 잡으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다양하게 행해져 왔으며, 또 앞으로도 행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 입장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또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붓다의 가르침의 성격을 포착하려는 시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

그러한 시도로서 지금 나는 여기에서 붓다 설법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특징적 모습을 지적해볼까 한다. 이러한 시도를 일삼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내 자신이다. 따라서 그 거론하는 방법에는 역시 현대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내 자신도 또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자료는 어디까지나 근본불교(원시불교)경전에 의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붓다 설법의 성격을 제시하면서 우리들의 요구에 응(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붓다의 설법에 접함으로써 계몽(啓蒙)된 사람들은 자주 다음과 같이 마음을 털어 놓으면서 이 스승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 경전은 말하고 있다.

“훌륭하도다. 세존이시여, 훌륭하도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넘어진 것을 일으키듯이 뒤틀린 것을 깨끗이 건듯이 방향하는 자에게 길을 가리키며 보여주듯이, 캄캄한 어둠 속에 등불을 켜면서 눈 있는 자는 보라는 뜻이 이렇게 세존은 여러 가지 방편(方便)으로서 법을 현시(顯示)하셨도다. 나는 이제 여기에서 세존을 받들며 또 그 비구중(比丘衆)을 받들며 진심으로 귀의(歸依)하노라. 원컨대 세존이시여, 나를 세존의 제자로서 허용하시어.”

이 구절은 아함부(阿含部)의 여러 경전에서 벌써 유형화(類型化)되어,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유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박미(素朴味)를 상실(喪失)하고, 진상(真相)을 희박(稀薄)하게 하였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이 구절은 붓다의 설법에 대한 제자들의 숭화(崇敬)를 상당히 진상에 가깝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 구절은 붓다의 설법에 관해서 그 어떠한 성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서 지적되어 있는 점은 이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가르침, ‘여실지견(如實知見)’의 가르침이라는 점이다. 오늘날의 말을 빌리면 좀 어찌(語弊)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가르침은 실증성(眞證性)이 있는 가르침이라고 이 숭화(崇敬)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캄캄한 어둠 속에 등불을 켜므로써 눈 있는 자는 보라고 말하듯이’라는 한 구절이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물론 이 한 구절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만은 아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키듯이’라는 한 구절은 전도(顛倒)의 견(見)을 떠나서 정견(正見)에 뜻을 두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또 ‘뒤틀린 것을 깨끗이 건듯이’라는 한 구절은 고대(古代)의 진리관에 서서 진리란 덮이지 않은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의 종교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환상(幻想)을 즐겨하며 불가사의(不可思議)를 말하는 것을 본지(本旨)로 하는 이가 많다. 종교를 탐구한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비(神祕)를 즐겨하며 초자연(超自然)에 관해서 듣기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나 붓다는 그렇지 않았다. 붓다 설법의 어디에도 우리들은 환상이나 불가사의나 신비나 초자연에 관한 언설(言說)을 볼 수가 없다. 이 스승은 다만 사람들에게 설



부처님의 설법은 형이상학적이 아니고 직관적이며 단순하다. 사진은 보물 제1472호 통도사 아미타여래설법도(通度寺 阿彌陀如來說法圖).

명하면서 ‘여실지견(如實知見)’하기를 가르치셨다.

‘불법에 불가사의(不可思議)는 없다’라는 훗날의 불자(佛子)의 말도 여기에서 함께 생각하여 볼으로써, 붓다의 설법의 이러한 성격을, 우리들은 제일 첫 번째로 깊이 기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단순(單純)하다는 것

또 어떤 경전에 의하면 이 스승의 가르침에 접하여 재가(在家的)의 신자가 된 어느 외도(外道)의 행자(行者)는 붓다의 설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숭화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존이시여, 진실로 크나 큰 사라(紗羅)의 나무가 잎도 떨어지고 가지도 떨어지며 나무껍질도 벗겨지고 부재(腐材)도 탈락되어 다만 심재(心材)만이 남아 서 있는 것처럼 세존이 설명하시는 바는 일체(一切)를 탈락하여 다만 심재(心材)에 있어서만 확립(確立)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한 앞서 말한 ‘넘어진 것을 일으키듯이’라는 한 구절이 이것 다음에 계속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이 한 구절도 또한 붓다의 설법이 갖는 다른 성격을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흥미 깊은 숭화라 할 수 있다.

이 한 구절이 지적하고 있는 부처님 설법의 하나의 성격은 단순성(單純性)이라는 점이다.

붓다의 설법은 돌연이 결론만을 말하는 일은 별로 없으며 오히려 정연(整然)한 이론으로써 이끌어 간다는 점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 설법은 언제나 이치가 정연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차츰 차츰 단계를 따라서 유도(誘導)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매우 복잡하다고 말하는 것도 지나친 일만은 아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의 복잡 괴기(怪奇)하게 얽힌 속에서 매일의 생활을 영위(營爲)하고 있다. 그런 속에 있으면서 능히 올바른 관찰을 잃지 않으며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들은 먼저 부수적인 조건을 끊어버리고 필연적(必然的)인 조건만을 남기며, 가능한 한 단순화된 조건 속에서 잘 관찰하며 판단한다면 아마 판단의 정곡(正鵠)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여기 붓다의 이로정연(理路整然)한 설법이 훌륭한 단순화를 갖고 있다는 표현은 이러한 뜻의 단순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그루의 큰 사라(紗羅)나무가 있다. 그 잎이 먼저 떨어져 없어진다. 다음에는 그 가지가 끊겨지며 없어진다. 다시 그 나무껍질도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남는 것은 다만 한 그루의 사라(紗羅)나무 줄기의 심재(心材)만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바는 일체를 탈락하며 다만 심재(心材)에 있어서만 확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외도의 행자는 관취(觀取)하였다. 관취하며 또 명쾌하게 그 설명한 것을 이해함으로써 이 스승에 따르는 재가신자(在家信者)가 된 것이다. 우리들은 이 숭화가 지적하는 부처님의 설법의 성격을 잘 음미하며 생각하여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자칫하면 붓다의 교설이 복잡하며 번쇄하다는 인상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이 숭화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도리어 훌륭한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들도 또한 일체의 부수적인 것을 구하지 말며 단순하게 가르침을 들으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스승의 설법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불교의 인과는 황당하지 않다

문

유교에서는 불교의 삼세인과·죄복보응의 설이 황당하다하며 믿지 않는데 무엇으로 증거하여 그러함을 알겠는가

답

삼세의 인과·죄복이 보응(報應)이 있음은 천도자연(天道自然)의 정리이다. 밝기가 푸른 하늘의 백일(白日)과 같은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못함으로 부처님이 밝혀서 가르쳤을 뿐이다. 유자(儒者)인들 어찌 말하지 않았겠는가. 다만 말을 했어도 지극하지 못함이 있을 뿐이다.

‘보응’이란 무엇인가. 복의 극치를 말한다. ‘죄복’이란 무엇인가. 선악을 말한다. 이는 유자(儒氏)의 황극조화에 밝혔으나 다만 유자의 말은 삼세에 미치지 못할 뿐이니, 이것이 지극하지 못한 까닭이다.

만일 ‘정신(精神)이 일생에 그치지고 진멸(滅盡)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견이니 이는 생생의 이치를 매혹한다. “사람은 항상 사람만 되고 축생은 항상 축

나아가 닳으며, 가난하고 천하고, 아픈 사람들은 스스로 전생의 잘못을 뒤우치고 매일 착한 행실을 닦으며 허물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백성이 감탄하며 착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까닭이다. 유생이 이에 대해 황당하다고 하는 자는 부처님의 이치만 자세히 살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황극(皇極)의 도(道)도 알지 못하는 자이다.

예의와 사양으로 사람을 따른다면 사람도 또한 그에게 예를 하고, 악한 말로 사람을 꾸짖는다면 사람도 그를 꾸짖는다. 이는 눈으로 보는 인과이다. 옷을 입으면 따뜻하고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다. 봄에 갈면 가을에 수확하고 여름에는 모시옷을 입고 겨울에는 솜옷을 입는 데에는 세공(歲功)의 인과이다.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사시(四時: 사계절)와 같고, 순환출몰(循環出沒)함은 해와 달과 같다. 주역에 음양을 논하며 양음이라 말하지 않고 음양이라 말한 것은 음이 다하고 선변(旋變)하여 양이 됨을 말하며, 신구라지 않고 귀신이라고 말한 것은 급하고 나서 다시 평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삶에서 선악을 지으면 인과가 따른다

이를 모르면 佛法·儒教 모두 모르는 것

생만 된다’는 것은 상견(常見)이니, 이는 음양변역의 이치에 매혹됨이니, 단·상의 두 견해에는 부처님께서도 꾸짖으신 바이다.

부처님은 삼세인과의 설로서 세간의 개유(開諭)하여 크고 미세한 사물의 이치가 다 그러하지 않음이 없다.

이러한 ‘삼세’라는 것은 밤과 낮의 도이다. 낮이 잠자 반이되면 음기가 오중(午中)에 썩는다. 그러나 밤이 오히려 이르지 않는 것은 삼시(三時: 未·申·酉)니 이것을 인(因)이라고 말하고 이미 저물고 나면 음(陰)의 과(果)가 이른다.

이러한 ‘인과’라는 것은 풍을 심으면 풍을 얻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봄에 한 알의 곡식을 심으면 가을에 만 알의 씨를 거둔다’고 하였는데, 인생이 선악을 지으면 과(果)도 다시 이 같이 받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전세(前世)의 인(因)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今生)에 받고 있는 결과이고, 미래세(未來世)의 과(果)를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지은 원인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존자·귀자·부자는 스스로 전생의 공덕을 다행으로 여기고 더욱 할 것이다.

턱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우(大馬)·직(楸)·설(楸)의 하는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며, 유교의 인·서(仁·恕)이며, 부처님의 대비이니, 무릇 사람에게 이력(利澤)이 있고 물(勿)의 급난(急難)함을 구제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라의 왕 노릇은 4백년이고 은나라의 왕노릇은 6백년이고 주나라가 천하를 소유함은 8백년이니, 또한 먼저지는 축복하고 뒤에 있는 자는 연장함이 아니겠는가.

무릇 착한 행실이 누적되면 성인이 되고, 천하의 임금이 되며, 다음으로는 어진 사람이 되고 신하·재상이 되며 그 다음으로는 부귀와 명예가 잃지 않고 천하 후세가 함께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니 경하로움이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곧 유자의 현세의 인과이다. 이를 미루어 다함이 없는데 이르러도 이치가 어긋나지 않음이 사시의 운행과 같이 진실하니, 부처님의 보이신 가르침이 어찌 황당하다 하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